

생활체육전 내일 화순서 개막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5363명 출전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 대결

제24회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일 화순에서 열린다. '행복속애 복지화순 자연속애 생활체육'을 표어로 한 이번 대회는 제16회 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막해 27일까지 계속된다.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역대 최대인 5363명이 출전하며 게이트볼과 궁도를 비롯해 배구·배드민턴·볼링·생활체조·씨름·육상·정구·축구·탁구·태권도·테니스·합기도 등 정식 종목 15개, 줄다리기와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종목 3개, 검도·등산·야구 등 시범종목 3개 등 총 21개 종목에서 대결이 벌어진다.

순이다.

종목별로는 축구 참가자가 22개 시·군 480명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이 343명, 야구가 326명, 배구가 2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 감독으로 출전하는 완도 김남익(88)옹이며, 해남 태권도 대표인 고흥주(12)군은 최연소 참가자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3시 시·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화순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건강 체조 시범과 세한대(구 대불대)의 태권도 시범도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화순의 자연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촬영하는 힐링 포토존, 힐링 뮤직존과 화순 13개 읍면의 농특산물 장터가 마련된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가수 설운도와 현숙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폐회식은 27일 오후 3시 하니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참가해 전남 생활체육동호인들과 골프·등산·정구·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들은 운주사, 고인돌 유적지, 임대정 원림 등 화순의 전통문화현장을 방문한다. 한편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990년 나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여수가 1991·1996·1998·2001·2005년 5번에 걸쳐 대회를 개최했다. 광양이 3회, 목포와 순천, 강진, 해남 등이 2회씩, 나주와 구례, 고흥, 장흥, 영암, 영광, 완도 등이 1회씩 개최했다. 지난 1996년 매년 10월 25일을 도민의 날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1997년 제9회 대회부터 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리고 있다. 내년 대회는 해남에서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의 기쁨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세리히오 로모가 23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최종 7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승리를 확정짓는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MLB 월드시리즈 진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또 하나의 기적을 연출하며 월드시리즈(WS) 무대에 합류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최종 7차전에서 선발 맷 케인의 호투와 장단 14안타를 쳐낸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9-0으로 대파했다. /연합뉴스

7전4승제 챔피언십시리즈에서 1승3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놓였던 샌프란시스코는 5~6차전에서 3승3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 7차전까지 가져가며 기적 같은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내셔널리그 정상에 오른 샌프란시스코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격돌하는 대망의 월드시리즈는 25일부터 펼쳐진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체전 해단식

양궁 김란숙 최우수선수상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이 해단식을 갖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4일 조선컨벤션에서 장애인전국체전 해단식을 열고 7위의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특별포상금을 전달한다. 105명의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도 수여한다. 양궁 6관왕에 오른 김란숙(사진)에게 최우수선수상의 영예가 돌아가며, 김형희(역도)·이명구(양궁)가 우수선수상을 받는다. 장애인체전 5연패를 기록한 여자배구팀에게는 우승팀 포상이 이뤄진다. 또 광주선수단 중 최고득점을 기록한 장애인탁구협회 최우수단체상, 체전 2연패를 달성한 장애인축구협회와 6관왕을 배출한 장애인양궁협회가 우수단체상을 받는다. 장애인사격연맹과 장애인보치아연맹은 성취단체상을 수상한다. 한편 이번 장애인전국체전에 40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양궁 6관왕 김란숙을 필두로 금메달 33, 은메달 46, 동메달 30 등 총 109개의 메달을 획득, 2007년 이후 원정대회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용달 타격코치 영입



KIA 타이거즈가 타격 지도를 위해 김용달 코치(사진)를 영입했다. '타격 이븐'으로 불리는 김용달 코치는 LG트윈스(1990년, 2007~2009년)와 현대 유니콘스(1999~2006년), 한화 이글스(2012년)에서 타격 코치를 역임했다. 김용달 코치는 23일 2013 신인 손동욱·이홍구·박효일, 신고선수로 합류한 이대환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컵은 누구 품에...” 2012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하루 앞둔 2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SK 이만수(왼쪽), 삼성 류중일 감독 등이 우승컵에 손을 대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망이’ 삼성 vs ‘기동력’ SK

한국시리즈 3년 연속 맞대결 ... 오늘 1차전 선발 윤성환·윤희상

대망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가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맞대결로 24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디펜딩 챔피언' 삼성은 1985년 전후기 통합우승을 포함해 여섯 번째 한국프로야구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한다. 페넌트레이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른 SK는 롯데를 꺾고 삼성 앞에 섰다. SK는 연속 시즌 한국시리즈 진출 기록을 6년으로 늘리며 '가을 야구의 절대감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SK는 2010년 이후 2년 만의 정상 탈환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두 팀은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서 맞붙는다. 2010년에는 SK가 4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삼성이 4승1패로 설욕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3년 연속 같은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SK가 10승9패로 딱 한발 앞섰다. 1차전 양팀의 선발 투수는 커브의 달인 윤성환(31·삼성)과 포크볼의 마법사 윤희상(27·SK)이 마운드에 오른다.

◇삼성 “더 강해졌다” vs SK “해볼 만하다” = 삼성은 올해 페넌트레이스에서 팀 평균자책점 3.39, 타율 0.272로 투·타에서 모두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타선의 응집력, 선발과 불펜이 조화를 이룬 마운드의 힘은 지난해보다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지민, 권혁, 정현욱, 오승환 등이 버틴 불펜의 위력은 여전했다. 여기에 다승왕 장원삼(17승)을 필두로 윤성환, 탈보트, 배영수, 고든 등 선발진까지 힘을 더하면서 삼성 마운드는 활약을 구축했다. 이에 맞서는 SK도 김광현-윤희상-송은범-마리오 산티아고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다. 불펜의 좌완 원투 관치인 홀드왕(34홀드) 박희수, 마무리 정우람(30세이브)이 지키는 뒷문도 삼성에 견줄 손색없다. 공격에서는 이승엽-박석민-최형우로 이어지는 삼성 중심타선이 최정-이호준-박정권으로 짜인 SK의 클린업 트리오보다 무게감에서 앞선다. 장타력을 겸비한 2번 타자 박한이의 부활도 삼성 타선에는 큰 힘이 된다.

반면 SK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인 토타자 정근우로 대표되는 '기동력 야구', '작전 야구'가 강점이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는 = 1989년 단일 시즌에 도입 이후 정규리그 1위가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는 현 포스트시즌 시스템에서 하위 순위 팀이 추배를 든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21차례의 한국시리즈에서 정규시즌 1위가 무려 18번이나 우승했다. 1989년 플레이오프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정규리그 2위 롯데가 한국시리즈에서 빙그레를 꺾고 첫 하위팀 우승 신화를 썼다. 이후 롯데(3위·1992년), 두산(3위·2001년)이 예상을 깨고 역전 우승의 맥을 이었다. 특히 5전3승제의 플레이오프에서 최종전까지 치르고 한국시리즈에 올라 우승한 팀은 1992년 롯데가 유일하다. SK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세 차례도 모두 정규시즌 1위였던 해다.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1승2패로 비라 끝예 몰렸다. 무서운 집중력으로 전세를 뒤집은 SK의 '가을 야구 DNA'가 올해는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대원여행사) featuring train and bus services. Includes details for 'KTX Wangbuk' and 'Limjinkak' routes, departure times, and prices. Contact information: 062)526-7000.